

정책연구 평가 결과서

| | | | |
|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정책연구과제명 | 정신건강증진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개선방안 연구 | 연구기관/책임연구원 | 한국보건사회연구원 / 전진아 |
| 부서/과제담당관 | 정신건강정책과 / 김한숙 | 담당공무원 | 김 욱 사무관 |
| 연구방식 | 1. [✓]위탁형 2. []공동연구형 3. []자문형 | | |
| 연구자 선정방법 | 1. []일반경쟁입찰 2. [✓]수의계약 | | |
| 연구기간 | 2019. 10. 16. ~ 2019. 11. 29. (1.5개월) | | |
| 연구결과 | ① 정신건강증진시설*의 구체적인 인력 기준 개선 방안 *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 ② 정신건강증진시설별 시설 및 장비 기준 개선방안 ③ 정신의료기관 유형별 신청기준 | | |
| 평가결과 | <p>○ 정책연구 목적과의 부합성</p> <p>☞ 연구목적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구체적인 인력기준, 시설 및 장비기준, 유형별 신청기준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.</p> <p>☞ 연구목적이 달성되려면, (1) 정신건강증진시설 별로 구체적인 인력 현황, 시설 및 장비 현황, 유형별 신청 기준 현황을 파악하고, (2) 파악된 현황과 국제적 기준이나 국내법 및 정책이 지향하는 기준과 비교를 한 다음, (3) 각 영역의 현황과 기준의 차이 즉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고, (4) 파악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</p> <p>☞ 이러한 연구목적에 고려할 때 연구결과는 각 (1) 정신건강증진시설 별(입원병원, 외래병원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등)로 (2-1) 질적 인력기준(학력, 자격증, 등)과 (2-2) 양적 인력기준 (이용자 몇 명당 인력 1인, 등)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 있음, (2-3) 시설 및 장비 기준, (2-4) 유형별 신청기준,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 같음.</p> <p>☞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으로 현재는 목적에 명확하게 부합하는 연구결과 제시가 어려워서 이들 중 부분적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지만, 현재 연구결과들은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대체로 정책연구 목적과 부합한다고 평가됨.</p> <p>○ 추진방법의 적절성</p> <p>☞ 문헌연구, 현황조사, 외국사례, 초점집단인터뷰, 등을 통해서 정신건강증진시설 인력기준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고, 이는 대체로 연구</p> | | |

방법이나 추진방법 상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☞ 현황에 대해서 판단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지가 중요함. 현재는 미국 호주 등 외국사례와 관련 국내법이나 규정에 기반 하여 평가를 시도하고 있지만, 이들 기준이 타당한지에 대한 근거가 부족함. 즉, 어떤 기준을 기반으로 인력, 시설, 장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인지 명확한 기준 또는 그 타당성이 부족함.
- ☞ 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사례를 넘어서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국제적 규범이나 기준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. 즉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사용하였으면 더 설득력 있는 연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됨.

○ 계약 내용예의 충실성

- ☞ 2019년에 완성되어야 할 보고서로 이해되는데,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지만,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충실하게 계약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.

○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

- ☞ 인용된 부분을 참고문헌 표기를 적절하게 하고 있어서 큰 문제없고, 표절이나 부정행위의 이슈는 없다고 판단됨.

○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

- ☞ 연구결과를 토대로 (1) 정신건강증진시설별(입원병원, 외래병원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, 등)로 (2-1) 질적 인력기준(학력, 자격증, 등)과 (2-2) 양적 인력기준 (이용자 몇 명당 인력 1인, 등)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 있음, (2-3) 시설 및 장비 기준, (2-4) 유형별 신청기준, 등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. 특히 현행 관련법이나 규정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제시를 위해서는 연구결과 활용도가 높음.
- ☞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황 분석을 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외국사례 또는 관련 국내법이나 기준에 기반하고 있어서 연구결과 활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함. 관련 국내법이나 규정의 기준 기반으로 평가된 것은 기관별로 현재 시설, 인력, 등 기준을 토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는 타당함.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관련 국내법이나 규정의 기준이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한 것인지에

| | | |
|--|--|--|
| | | <p>대한 고려가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음.</p> <p>☞ 따라서 현재 연구결과이 활용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, 향후 연구에서는 적용된 기준들이 국제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현실적인 기준들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증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</p> <p>☞ 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은 평가나 인증 차원의 문제점 발견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발전적 인력, 시설, 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추구하려면, <u>향후 연구에서는 국내법이나 규정들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 후 법이나 규정의 기준들을 수정한 다음에 우리나라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인력, 시설, 장비 등의 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</u></p> <p>○ 제언 및 향후 연구진행 방향</p> <p>☞ 현재 연구는 주어진 상황에서는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판단됨. 하지만 지금과 같은 개선방안 연구에 앞서 <u>(1) 우리나라 관련법 상의 현행 기준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것인지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먼저 진행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기준들을 도출하고, (2) 후속적으로 도출된 기준을 바탕으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방향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.</u></p> <p>○ 기타사항</p> <p>☞ 인용된 데이터가 2019년 기준임. : 2020년 시설현황과 2019년 시설현황이 다른데, 2019년 데이터를 인용해도 무방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.</p> <p>☞ 목차의 제2장 제3절. 제목에 오탈자 있음. : “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의 문제제” → “.... 문제점”</p> <p>☞ 본문 2페이지: “1992년 제정된 정신보건법....” → “1995년 제정된...??”</p> |
|--|--|--|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|---|
| 평가자 인 확 | 구 분 | 평가위원 | | 과제담당관 | |
| | 성 명 |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 상 경 교수 (서명) | | 김 한 속 (서명) | |
| 평 가 보 고 회 | 개최일자 | - | | 장 소 | - |
| | 참석자 | | | | |